십자가를 식상해하는 이유

(고린도후서 4:7~12)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식상해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를 식상해하는 이유'
식상하다는 말은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 되어 질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주변의 교인들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전도하실 때에 이를 식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말로 여기고 듣기 싫어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지겹다고까지 했답니다.
한편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십자가 생활화만이 참 신앙인의 자세임을 확신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의 결말이 매번 십자가 생활화로 끝나면 교인들은 다른 할 말은 없느냐, 삶이 얼마나 다양한데 매일 십자가 이야기만 하느냐며 식상해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십자가 생활화가 지겹다거나 식상하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지겨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고 십자가 생활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사모님이 만류하시기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가능한 빨리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서서 죄

사함 받은 자로써 부활단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매여서 우울함에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며 십자가 생활화를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올챙이에 머무르는 상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식상하게 여긴다면 믿음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들을 때마다 좋고 기쁘게 여긴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상태가 유지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 식상하게 여기는 분들께서는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십자가가 죄 사함의 사건임을 믿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늘 십자가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음을 굳게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식상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혹은 애초에 복음과 믿음을 잘못 배워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십자가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박증이 없는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저는 제3자 앞에서 제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집사람이나 집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둘이만 있을 때에는 여보라고도 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름을 부르니 결혼하고 37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집사람의 이름이 식상하거나 지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써의 아내가 저에게 응답하고 또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여보나 당신으로 부르면서 식상함을 느끼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호칭에 해당하는 존재가 응답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 같이 허공을 향해 사별한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댄다면 보다 못한 자녀들이 말릴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이 없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름을 반복하고 부르는 것은 공허한 행동입니다. 꼭 사별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공허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식상하고 지겨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도 식상하거나 지겹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여보 당신으로 부르면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동안에 십자가는 아무리 반복해도 식상하거나 지겹지 않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부름이 되어 식상하고 지겹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배제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를지라도 종교의 하나님일 뿐 복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했고 또 바라고 있다면 십자가는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식상해졌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으며 만날 필요 또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인이라는 명분으로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창고에 넣어뒀다가 성탄절에만 꺼내 쓰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육체를 입은 인격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질그릇에 담기는 보배가 무엇인지에 1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격이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 학력 등과 같은 것들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과 대장도 들어있습니다. 육체에 오장육부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보배 또한 인격이라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에 필요한 장기나 신체 부위만을 골라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오장육부는 항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육체라는 인격의 질그릇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의 사순절 고난주간에만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오장육부를 담은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육체를 입은 인격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담긴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7절 하반부에 이어집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함께 할 때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사할 때에 공부할 때에 살림할 때에 몸에 오장육부가 항상 담겨 있듯이 육체를 입은 인

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항상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부부가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를 때에 실제로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여보 당신은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은 이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를 입은 인격의 질그릇에 담고 있을 때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식상하고 지겨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십자가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좋고 기가 막히고 신비한 말은 달리 없습니다.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이름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겹고 식상하게 여긴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죽은 배우자의 이름을 허공에 대고 아무리 불러봤자 그것은 공허한 부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공허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담고 다닐 때의 나타나는 일을 8~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에서 대적들에게 욱여쌈을 당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욱여쌈을 당하여도 마음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았더니 마음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마음 안에 담은 것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이 육체를 둘러싼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사건에도 쉽게 상처받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자 두렵기만 했던 세상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의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담지 못했던 시절의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로 배워서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환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오장육부를 담고 있듯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게 되자 세상의 욱여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세상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등의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를 입은 마음 안에 담음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욱여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욱여쌈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고민의 80~90%는 십자가에서 안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걱정과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서 욱여쌈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담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욱여쌈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육체에 오장육부가 담긴 상태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면서 필요한 오장육부를 골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마음이 지배당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몸에 장기를 담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긴 뒤에야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제적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한다고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를 입은 마음 안에 담으면 삶은 재미있습니다. 오장육부가 몸에 담겨 있듯이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담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세상에 지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욱여쌈을 당하는 것처

럼 보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올 테면 오라'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담았을 뿐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크게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식상하고 지겹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질그릇에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에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적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세상에 정복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짊어지는 것이 곧 담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보배를 담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곧 육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나타난 죽음은 헬라어 싸나토스(θάνατος)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굳이 네크로신(νέκρωσι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크로신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네크로시스(νέκρωσις)로써 이는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a putting to death)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1절에서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 넘겨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위한다는 것은 헬라어 전치사인 디아(διά)로써 위한다는 뜻도 있지만 통한다, 때문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입은 인격에 예수님을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마음을 보내는 자들이고 결국 죽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로 욱여쌈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성도가 있습니다. 이때에 해야 하는

일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마음을 실어 보냄을 통해 죽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배로써 담고 다니며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녀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마음을 실어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에 대해 마음을 죽은 자로 만든다면 예수의 생명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안다면 내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마주하며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보배처럼 짊어지고 다니고, 담고 다니다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에 대해 나의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에 비로소 몸 안에 위를 넣지는 않습니다. 위를 담고 다니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기 위해 폐를 몸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폐를 담고 있으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담겨 있을 때에 세상을 바르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 또한 세상에 대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나 예뻐서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지겹고 식상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라고 하시며 오장육부가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시는 과정을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과정을 담는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

라본다는 것은 곧 집중입니다. 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줘야할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 가족문제, 사업문제 등이 나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119에 전화하고 돌보는 것이 유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고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게 가장 위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돈 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사업문제가 급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삶에서 유지하였고 그것을 짊어지고 담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항상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차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 속에서 재현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마음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마음을 보내는 동안 삶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여러분에게 혼동을 줄 기미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음을 정복해서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나를 죽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나에 의해서 돈에 지배되고 건강문제에 지배되고 자녀문제에 지배되고 있는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나를 죽이는 주체인 나는 살아있습니다. 세상문제를 담고 있는 나는 죽었지만 그 나를 죽이는 주체인 나는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는 누가 죽입니까?
십자가 생활화는 내가 나를 죽이는 마음의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마음을 싣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살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자기 몸에 대해 주인노릇을 하는 주체로써 매듭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순간은 곧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살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십니다.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체성을 위임해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

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 성경 말씀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쳐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배로 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세상에 죽어야 한다고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 지배되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모습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배당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임을 인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마음을 실어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살려서 승천에도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복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배우자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배우자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십자가는 지루하거나 식상할 수가 없는 신앙의 삶이 지속되어갈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지루하고 식상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시며 신앙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장육부가 몸에 담겨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만 합니다. 그 죽으심의 과정에 마음을 올려놓음으로써 죽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도 일도 과제도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중육부가 몸에 담겨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을 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